

(사) 한국환경준설학회

고문: 류재근
 홍기훈
 회장: 양동범
 부회장: 공준석
 김경련, 김영석
 김정환, 김홍선
 박재우, 신원식
 이재관, 이호식
 이창수, 이호식
 감사: 김석현
 손민호

http://www.k-environmentaldredging.or.kr (우) 137-773 서울 서초구 서운로 62의 10동601호
 (투고 안내: 총무이사 최진영, 전화: 031-400-6152/6185 팩스: 031-408-4493 이-메일: keds2011@naver.com)

목차

발간사

- 1 추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 2 해외퇴적물 관리 기술/학술 대회
- 3 퇴적물 관련 국제회의
- 4 언론에서 보는 국내·외 준설기사
- 5 입회원서



발간사

존경하는 한국환경준설학회 회원 및 귀빈 여러분, 2015년 추계 학술대회를 이곳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귀빈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한국환경준설학회는 그 동안 전임회장단의 헌신적 노력과 학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 학회는 그간 공공수역에서의 환경준설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였을 뿐 아니라 환경준설을 위한 과학, 기술, 정책, 법, 제도의 공통적인 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내·외 여러 관련 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준설 사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학회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긴급히 요구되는 선진 환경준설 기반 구축과 준설물질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준설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기여에 힘입어 우리 학회는 춘계, 추계의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뉴스레터 발간, 학술지인 한국환경준설학회지 발간 등으로 점차 학술단체로서의 성숙한 면모를 구비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선진 환경기술과 준설에 대한 학술발표, 준설물질의 새로운 가치창조/유효활용에 대한 심포지움, 그리고 포스터 발표와 기술소개, 종합토론과 자유토론 등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 오늘 학술대회가 결실 있는 학술교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사)한국환경준설학회
 회장 양동범 배상
 dbyang@kiost.ac.kr

1. 한국환경준설학회 2015 년 추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 주최: (사)한국환경준설학회
- 후원: (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
(사)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워터저널
해양수산부
- 일시: 2015 년 11 월 13 일(금) 예정
- 장소: 프리지던트 호텔 (서울 시청 앞)
- 참석: 산업계, 정부기관, 학계 관계자
70 명
- 협찬: 단체회원사

2. 해외 퇴적물 관리 기술/학술 대회

CEDA 컨퍼런스/세미나

CEDA Dredging Days, 5-6 November 2015, Rotterdam, The Netherlands

CEDA conferences, seminars and lectures are vital channels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knowledge and experience. Presentations, expert panels, technical exhibitions and social events all provide excellent opportunities for developing a wide range of profession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On this web site (<http://www.cedaconferences.org/content.asp?owner=1&h=2&s=0>) you find information about coming international conferences as well as past events (presentations, photos, conference results).

8 차 세계 해양 오염 및 생태독성 컨퍼런스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rine Pollution and Ecotoxicology, 20 to 24 June 2016, Hong Kong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Marine Pollution and Ecotoxicology” has 20 years of history and has been held in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and 2013, making this Conference series as a signature event in the international arena of marine pollution research. Building on this success,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rine Pollution and

Ecotoxicology (ICMPE-8) will be held from 20 to 24 June 2016 at The University of Hong Kong (HKU). It is jointly organized by the School of Biological Sciences, HKU and the State Key Laboratory in Marine Pollution. (<http://www.biosch.hku.hk/icmpe8/>)

9 차 로스토크 준설토 세미나

The 9th Rostock dredged material seminar, 27 to 28 September 2016, Rostock, Germany
(www2.auf.uni-rostock.de)

국제 마그데부르크 하천 보호 세미나

International Magdeburg Seminar on River Protection

3. 해양환경관련 국제회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18-22, April, 2016, London, UK

제 38 차 런던협약 (London Convention) / 제 9 차 런던협약 런던의정서 (London Protocol) 합동 과학그룹회의, 7-11March, (파푸아뉴기니 또는 인도 선정 예정)

4 언론에서 보는 국내·외 준설기사¹

<하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월 24일 중구 인천해수청사에서 ‘인천 신항 항로 중심 준설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용역 착수 후 6개월동안 시행한 수심 측량과 지반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신시설계 계획에 대한 브리핑 진행 예정. 이번 용역은 친환경적인 준설공사 시행과 매립재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2017년 말까지 총 공사비 15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5-02-23)

¹ 학회에서 기사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음.

강원도 동해시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하천과 소하천 준설 실시 지방하천 2 개소, 소하천 29 개소에 2 억 8000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준설 실시. 소하천은 6 월까지 일부 파손된 단봉천 제방정비, 만우천 영단천의 퇴적물준설과 잡목제거 작업 실시-하천 침수피해(범람) 최소화하고, 5000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석두골천등 하천 내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계획 수립할 예정임 (뉴시스, 2015-05-22)

경북 구미시 구미시 선산읍 원리 감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합류부에 삼각주 형태로 토사 재 퇴적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이곳에도 다른 4 대강 사업구역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바닥 흙과 모래를 퍼냈다. 정부는 강 준설로 물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커져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했지만 이곳은 감천에서 흘러나온 흙과 모래가 낙동강에 쌓여 토사를 준설한 3 년 전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음. 이에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4 대강 사업으로 강을 준설한 뒤 부작용만 생기고 다시 모래가 퇴적했다" 고 말함. (연합뉴스, 2015-06-24)

전북 익산시 새만금 수질과 직결되는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추진. 자연형 하천조성은 식생매트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생태습지조성은 소류지 준설과 우회수로 설치, 정화식물·초화류식재 등으로 가축분뇨로 나오는 오염물질을 해소하고, 주교제 유역의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임. 이달부터 본격적인 설치공사가 진행됨. 올해 말까지 주교제 우회수로 설치, 퇴적물 준설 등을 끝낸 뒤 내년에 준공을 추진할 예정. 새만금 수질개선과 악취저감 등 왕궁지역의 생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뉴시스, 2015-09-01)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 준설사업을 추진중인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7 일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사업관련 소통과 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열었지만

‘임진강 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는 불참을 선언함. 시민대책위 등은 갈등해소와 조정협의를 위해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가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함. 국토청의 용역을 받아 동부 엔지니어링은 홍수 전·후 2 차례에 걸쳐 생태계 추가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짐. (한겨레, 2015-08-27)

충남 아산시 지역 내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추진 중 준설토 처리가 부적절해 일부 하천이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업비의 낭비가 지적됨. 퇴적토 준설사업 현황은 2012 년 4 만 770 m³ (18 개 하천), 2013 년 5 만 3930 m³ (23 개 하천), 2014 년 2230 m³(30 개 하천) 등임. 이 중 염치읍, 인주면 등의 하천에서 반복적 사업이 이뤄지고 있음. 이에 아산시 의회에서는 준설사업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뉴시스, 2014-12-03)

<해양>

경남 부산 용천동 서측 해상에 새 준설토 투기장 마련. 부산신항 수심,6m를 17m로 늘리기 위한 준설공사 실시중 그로인한 3 천 62만m³ 준설토 발생, 그러나 현재 투기장 수용능력은 2천 284m³에 그침. 그래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천동 서측 배후단지에 호안 1.58km의 투기장 건설, 1천억원 투입신규 준설토 투기장이 조성되면 900 m³를 더 수용 가능함. 2015/5/6에 준설토 투기장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힘. 2018년 준공 예정 (연합뉴스, 2015-05-06)

경남 진해 행암만의 바닷속 해저 오염 퇴적물 준설 철구 모양으로 인해 해수 순환이 잘 되지 않는 행암만에 (산업화. 도시 팽창과정에서) 공장폐수, 생활하수가 들어와 오염퇴적물이 쌓임. 1982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2017년까지 24만 5천 736 m³ 수거 처리 예정.현재 행암만은 수질평가수치가 최저등급 (여름에 특히 적조와, 산소 결핍으로 악취가 심함).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고, 현재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변영향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고 있음. (연합뉴스, 2015-05-20)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해양수산청은 군산·장항항 유지준설 정비계획 용역 발주함. 이번 용역은 지금까지 조사된 수리현상조사 결과의 재분석을 통해 매몰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연도별 유지준설 투기계획 수립과 준설토의 활용방안, 효율적인 유지준설 시행방안을 적극 검토하게 됨. 대상지역은 군산항과 장항항 해역 일원 및 주변 해역이며, 과업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임. 이번 용역을 통해 토사 매몰을 분석해 군산·장항 항로준설(2단계) 완료 이후 유지준설 및 투기계획을 재수립할 예정. 아울러 군산·장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준설 방안을 마련해 항만 활성화에 활용할 계획임. (뉴스1, 2015-06-10)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 내 대형선박의 통항 안전성 확보 및 체선·체화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활용한 '광양항 3항로 준설공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힘. 광양항 내 대형선박이 이용하는 3항로의 계획수심은 DL(-)22m이나 토사 매몰로 현재 최저 수심이 DL(-)18.5m에 불과하고, 굴곡부 폭이 일부 협소(380m)하여 3항로를 이용한 25만DWT급 이상 대형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도 준설이 시급한 실정임. 여수해양수산청은 3항로 폭을 480m로 확장하고 유지준설 공사를 추진을 위해 지난 2014년12월에 공고대상사업 사업자 선정절차를 거쳐 포스코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7월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후 본격적인 공사 착수에 들어감. (뉴스1, 2015.07.08)

경상남도 울주군 서생해안 모래준설·양빈 피해 확인 나서 22일 울주군에 따르면 1억원을 들여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7개월간 '서생면 회야강 하구 및 진하 해변 인근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함. 이를 통해 준설 및 양빈 작업이 실제 어민 피해로 이어졌는지 여부와 실제 피해 범위

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하고 어민 피해가 확인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2차 용역을 한 뒤 정확한 피해보상액을 추산해 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임. 울주군 관계자는 "실제 어업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향후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며 "근본적인 모래퇴적 및 침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힘. (뉴스1, 2015-06-22)

제주 추자도 신양항 저수심으로 인한 준설. 신양항의 수심기준은 6m로 설계 되었으나 해양수산부에서의 국가 해도를 보면, 6m 내외의 수심지대가 빈번하게 나타남(평균 2m~5.2m), 이로 인해 갑작스런 기상변화, 고장, 운전미숙으로 인해 여객선이 항로를 벗어나면 사고로 일어날수 있는 위험지대가 많음

(ex. 레드펄호 사고) 2015/7/2일 김위원장 농해수위 회의에서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관련 정부에 요구 (해수부, 제주도,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예인선투입, 표준 조선법 확립, 긴급준설 등 단기적 대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함. (제주도민일보, 2015-07-03)

인천광역시 감사원 감사결과 인천해수청이 782억원을 들여 '경인 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 부지 호안 건설공사' 계획에 따라 2012년 5월 경인항을 개장, 경인항은 2만t급 대형 선박까지 입·출항할 수 있도록 기준 해심 8m짜리에 맞춰 주항로를 준설하고 기준 해심 4m짜리 보조항로도 조성했으나 지난 3년간의 물동량은 처음 예측한 2039만t의 7.6%인 155만t에 불과함. 특히 2만t급 선박은 개장 3년째 입·출항 실적이 전혀 없었다. 경인항을 가장 많이 이용한 선박은 어선 수준의 1000t 미만 소형으로, 모두 191척이 드나듦. 경인항은 기존 인천항보다 접근항로에 있는 모래의 퇴적 속도가 10배 이상 높은데도 항만 공사가 강행됨으로써 매년 준설에만 1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됨. (서울PN, 2015-08-20)

전북 군산 새만금 신항만건설을 위한 방파제공사가 내년에 완공되고 비응항의 정온도 개선사업과 군산내항 수제선정비사업이 내년 2월 착수될 예정이다. 군산 내항의 호안 및 배후부지 등 노후 된 항만시설정비로 항만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군산내항수제선 정비사업도 내년에 3억원의 설계비용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 오는 2017년까지 73억원이 투입돼 준공됨. 특히 총 공사비 716억원을 투입, 1400만㎡을 준설코자 지난해 12월 착공된 군산항 항로준설 2단계사업은 내년에 289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2017년에 준공됨. (전북일보, 2015-09-07)

<도시수로 및 기타>

경상남도 양산시 여름철 대비 하수관로 일제 준설경남 양산시, 올해 시에서 마련한 특수시책에 따라, 우수토실의 철저한 관리와 하수관 내 퇴적물 준설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우수관 22곳 8km, 우수관 10곳 10km 구간의 퇴적물 일제 준설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하수구 악취차단을 위해 악취방지트랩 1000개를 설치할 계획임. (뉴시스, 2015-04-13)

인천시 강화군 강화군 내 저수지 준설 사업비 9억원이 확보되었다고 밝혀짐. 농림축산식품부 가뭄 관련 예산 총 50억원 중 강화군 저수지 준설 관련 사업비 9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혀짐.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강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헤럴드경제, 2015-06-15)

경기도 세종시 한국농어촌공사는 22일 심각한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강화군 고구저수지 등에 대한 긴급 준설을 시행해 52만톤의 용수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힘. 지난 6월12일부터 50억원을 투입해 전국 28개 저수지에 준설작업을 추진하고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전국 60개 저수지 준설을 추가 착수할 계획이며 이후 95만톤의 용수를 더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 (뉴시스, 2015-07-22)

경기 용인시 기흥 저수지 내 수질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됨.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기흥 저수지의 준설에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내년부터 총 493억원을 투입하게 됨. 준설방식은 육상준설과 수중준설(진공흡입압송식) 방식을 병행할 예정임. 기흥저수지로 유입되는 상류 수질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도 적극 추진 중임. (뉴시스, 2015-07-25)

경기도 경기도는 농작물 가뭄 피해 용수개발 사업비로 96억6000만 원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5일 밝힘.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와 여주시 북내면 석우리 등 도내 34곳에 하천이나 강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양수장을 설치하고, 양평 병산관 양주 연곡저수지 등 저수지 6곳을 준설할 예정임. 과주시 광탄면과,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등 6곳은 하천의 중간을 가로막아 물을 저장하는 취입보를 설치하고 가뭄실태 파악을 통한 정확한 가뭄진단을 위해 발 용수공급 실태를 조사하기로 함(뉴시스, 2015-07-05)

강원도 강원도는 가뭄극복을 위한 가뭄항구대책사업(83억), 저수지 준설(24억), 수리시설 개·보수(120억), 다목적 농촌용수(30억)등 5개의 사업에 276억 투입하여 도내주요 고랭지 채소주산지역(정부추경예산 확보로 인해 가능해짐), 농업지역에 농업용수 공급예정이라고 밝힘. (강원도민일보, 2015-09-02)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올해 7월말 집중호우로 하수관 또는 빗물받이로 유입된 토사가 가뭄으로 유속이 느려져 그대로 퇴적되면서 생활 오니 등과 섞여 악취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준설작업을 하기로 함. 특히, 기존의 대형 준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면서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작업을 실시할 계획임. 관계자는 “이번 준설작업을 통해 이상 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

론, 악취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청주일보, 2015-09-07)

전남 나주시 나주 빗가람 혁신도시 입주민과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최대 골칫거리였던 ‘축산 악취’가, 내년 정부 예산에 국비 145억원이 반영되고, 부족분 200억원은 시비로 부담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호혜원 주민 108가구에 보상비를 지급하고, 40년 동안 축산 분뇨 7만㎡가 쌓인 월산제를 준설하기로 함으로써 해결 됨. 최대 민원이었던 호혜원과 월산제의 악취는 호혜원과 나주시가 폐업과 보상에 합의함. 정부는 발표한 예산안에 월산제 준설비 120억원과 양로원 신축비 25억원을 합쳐 정주환경 개선비 145억원을 반영하여 악취원을 단계적으로 없앨 계획임. (한겨레, 2015-09-10)

4 국외 준설기사¹

<중국>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미스치프 환초

중국이 필리핀 서부 팔라완 서쪽 250 km 해상에 위치한 남중국해 영토분쟁 지역(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 위치한 미스치프 환초)에서 새로운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공개됐다. 수십 대의 중국 준설선이 모래를 파내 물에 잠겨있는 환초에 들이붓고 있는 모습도 나타났다. 지름 약 7 km의 고리모양으로 이뤄진 이 산호도의 안쪽 바다에는 흰 모래로 메워진 육지가 생겨났다. 모래가 드러나지 않은 곳의 바다 색깔도 군데군데 열게 보인다. 엄청난 준설 속도와 규모로 미스치프 환초는 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주변에는 500~800명을 실을 수 있는 규모의 감시선들이 순찰 중이다. 중국은 주변국들과 갈등을 벌이며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 군부대 설치가 가능한 인공섬 7개를 만들고 있다. (세계일보, 2015-0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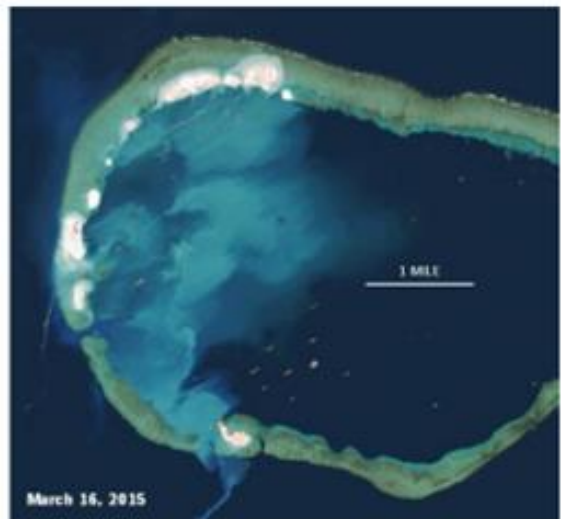


사진) 미스치프 환초의 2012년 1월 24일 모습(위쪽)과 중국어 매립 및 준설작업을 진행중인 2015년 3월 16일 모습(아래쪽)을 비교한 위성사진. (New York Times, Digital Globes)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피어리 크로스 암초

중국이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지에 비행기 활주로를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3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베트남과 타이완, 필리핀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 피어리 크로스 암초에 활주로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같은 달 촬영된 또 다른 사진에는 중국이 민간이나 군 공항으로 활용 가능한 활주로를 갖출 정도로 규모가 큰 또 다른 인공 섬이 건설



사진) 지난해 2월 베트남 외무부가 공개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사진. 중국선방이 인공섬 준설과 구조물 건설작업을 하고있다. (VOA NEWS)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인공섬 간척 작업에 대한 비난을 일축하며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파라셀 군도의 2 개 섬에서 중국이 토지 확장공사를 하는 위성사진들이 공개되면서 미국은 중국 정부에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평화적 해법을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VOA 뉴스, 2015-04-17)

<중동, 아프리카>

이집트 수에즈 운하 모하브 마미쉬 수에즈 운하 관리청장은 "굴착과 준설 작업을 7월 15일 완료한다. 새로운 수에즈운하의 개통은 8월6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집트 정부는 10개월 전인 지난해 8월 145년 역사의 기존 수에즈 운하 옆을 평행하게 지나는 72km 길이의 새 운하 건설에 착수했다. 공사 규모는 총 80억달러(약 8조 9400억원)다. 마미쉬 청장은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8월6일 운항 개시를 지시하면 선박들의 운하 통과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준설작업은 약 85% 완료된 상태다. 제2 수에즈 운하가 완공되면 이집트 정부가 걷는 연간 통행료 수입은 2023년까지 기존 5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뉴스1, 2015.06.13)

세계 준설 협회 총회 2016 WODCON XXI - "Innovations in Dredging" - June 13 - 17, 2016 - Miami, FL

WODCONs, the only worldwide events dedicated exclusively to dredging and maritime construction, provide a unique platform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from industry, academia and governments to meet and discuss dredging.

Western Dredging Association invites you to attend the

WODCON XXI

INNOVATIONS IN DREDGING

WORLD DREDGING CONGRESS & EXHIBITION

JUNE 13-17, 2016

MIAMI HYATT REGENCY HOTEL

WODA World Organisation of Dredging Associations | WEDA Western Dredging Association

WODCON2016.ORG

WHO WILL ATTEND?

WODCON XXI will bring together expert representatives of manufacturer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consultants, public authorities and contractors working in the dredging, navigation, coastal and inland flood protection, deep-sea mining, offshore wind energy, oil and gas production fields and providers of a broad range of services such as brokers, insurers, financiers, lawyers, and many more.

한국환경준설학회 입회원서

개인회원	성명	(국문) (한자) (영문)	필수작성
개인회원	생년월일		필수작성
개인회원	전화번호		필수작성
개인회원	이-메일		필수작성
개인회원	소속기관명		필수작성
개인회원	소속기관주소	(우편번호) (주소)	선택작성
개인회원	우편물 수취 주소	(우편번호)	선택작성
		(주소)	선택작성
개인회원	연구 핵심어		선택작성
개인회원	회원 지위	() 학생회원, () 정회원, () 이사 - 희망 하시는 곳에 기호 “O” 삽입. 단, 이사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에 한함	
개인회원	연 찬조회비	학생 회원: 1 만원, 정회원: 3 만원, 이사: 10만원	
개인회원	신청일자 및 서명	신청일자: 성 명:	서 명:
단체회원	상호		필수작성
단체회원	사업자등록번호		필수작성
단체회원	대표자 성명	(국문) (한자) (영문)	필수작성
단체회원	주소	(우편번호) (주소)	필수작성
단체회원	사업영역		필수작성
단체회원	담당자 성명/직위		필수작성
단체회원	담당자 연락처	(전화) (이-메일)	필수작성
단체회원	연 찬조회비	단체회원: 20만원	
단체회원	신청일자 및 서명	신청일자: 성 명:	서 명:

주1] 관심 핵심어 예: 준설장비개발, 준설물질 처리, 수저퇴적물화학, 법 등 (3 개까지)

주2] 납부 계좌: 농협중앙회 301-8826-7199-21, 한국환경준설학회

주3] 전화: 031-400-6152/6185, 팩스: 031-408-4493, 이메일: keds2011@naver.com

(사)한국환경준설학회 단체회원 소개 (가나다 순)

 <p> ㈜신대양 http://www.sindaeyang.co.kr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16번길 67번지 TEL 051-266-3306, Fax 051-266-3310 </p>	 <p> ㈜에이치플러스에코 http://www.hpluseco.co.kr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2 제이타워 TEL 02-2037-2986, Fax 02-2037-2979 </p>
 <p> ㈜이구건설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9-7. TEL 055-855-0040, FAX 055-855-0042 </p>	 <p> (주)지오시스템리서치 GeoSystem Research Corporation (주)지오시스템리서치 http://www.geosr.com/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1-40 한림휴먼타워 306호 TEL 070-7019-0600, Fax 031-479-7410 </p>
 <p> 해난구조업, 해상운송, 수중공사업 THE KOREA SALVAGE CO., LTD. (주)코리아살베지 http://www.korsal.com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해기사협회301호 TEL 051-441-0801, FAX 051-441-9786 </p>	 <p> (주)코오롱워터앤에너지 http://www.kolonwe.com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 센터 S동 23층 TEL 032-622-8140, Fax 032-622-8399 </p>
 <p> ㈜토양자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디오슈페리움 오피스동 1305호 TEL 02-714-7221, FAX 02-782-5642 </p>	 <p> 해양생태기술연구소 http://www.marine-eco.co.kr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191 동명빌딩 1,4 층(용당동 485-1) TEL 051-611-6200, FAX 051-611-0588 </p>
 <p> ㈜프런티어오프쇼어서비스 EcoDredge 한국대리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칠강로 220-12 TEL:054-275-1917, FAX:054-281-1297 </p>	 <p> ㈜HN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750-3 TEL 061-691-5656, FAX 061-691-2727 </p>